東拓作人의 霹靂가튼高喊

우리는아츰부터굶고잇스니 동텩사원너도좀굶어보아라

南原郡德果巳梅兩面爭議

동텩농감리상일(東拓農監李相一)에대하야 소작인의불평이심하야 대표자들이 동텩을방문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리리지뎜(裡里支店)을 방문한결과 『사실을됴사하야 소작권을환부하겟다』는대답을듯고 대표들은 긔일을기대하야 됴사하야 달라고하얏든바 예뎡일인 지난십륙일에남원군덕과사매(南原郡德果巳梅)두면소작인 [illegible]집여명이 오전열시부터사매면오신리(梧新里)에모히여 동텩사원 의오기를고대하얏스나 무정의한사원이 오후 [illegible] 하기착수하야 오후네시까지 십여명밧게못하얏는데 그불평을 종합하면

一、水旱雨災로免稅된土地에賭租바든것

二、定租地에小作料加捧한것

三、鐵下利用地(水害當한土地)를처서三四年間無料耕作)에서賭租바든것

四、租代金을東拓規定以上에더바든것

五、小作權을無理移動한것

등인데 이에대하야 동텩사원은 말하되 정조가봉과 추하리용디에 도조를바든것은 당연히도로주겟다하며 리상 [illegible] 게온 동텩사원은사실을 자세히 알수업스나 하로만 더기달려주면원만한 해결을하야 줄터이니 각각도라가기를바란다함으로군중은살긔가 등등하야 『소작권을 환부한다든지못한다든지두가지말로곳이 날것이어늘 엇지또하로를기다리라하느냐』하고마츰비가옴도불구하고 크게 소동하얏섯는데 마츰내하로만 더기달려달라고 애걸함으로 부득이 오후여섯시에산회하엿다

다수한 소작인들은 『배곱하죽는사람을 배부른사람이 안다는법이잇느냐』하고 벼력가튼소리를지르며 점심을먹고자하는동텩사원에게대하야 『우리는아츰부터굶엇스니 사원놈너도굶어보아라』하고 고함을지르매 동텩사원은말하되 자긔는책임자가아니니 대표제씨와함께리리로가서 지뎜장(支店長)과 담판하자하며 경비와려비는 부담하얏다함으로

代表出發 리리지뎜으로

젼날에해결을엇지못한소작인백여명은 다시십칠일에 사매면사무소로 모히엿는바 오전열한시부터 소작인을위하야 출장한전주목미변호사(全州木尾辯護士) 사무원 신정우(申晸雨)송주진(宋柱振)량씨와 대표네사람과 동텩사원두사람이립회하고 작인을한사람식불러 사실을됴사

작인들은 『소작권환부는 즉석에서락착하고 다른됴건만그런케하자』하며 극도로흥분되야 형세가자못 위험하얏섯다가 결국대표네사람과 변호사사무원량씨를 리리까지 파견하야 해결하기로결뎡하고 오후팔시에해산하얏다가 다시 밤열한시에 오수산뎐려관(獒樹山田旅館)에 모혀서 대책을토의하다가 열한시에헤여졋고 대표자와 변호사무원은 십일아츰에 자동차로리리를향하야출발하얏다더라(남원)

信川郡作人은 郡廳의調停熱望

한편으로는도와총독부에단원

사리원동텩지뎜(沙里院東拓支店)의 횡포로인하야 소작쟁의가 일어난지 이미수월내에 지금까지 악착한수단을 계속하는바 동텩소작인칠십여명이 군청과경찰당국에 탄원서와 사활문뎨를해결키위하야 군령과 경찰당국에 쇄도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황해도신천군로월면 설매리 오국리 마명리 성월리 정동리(黃海道信川郡蘆月面雪梅里 五局里 馬鳴里 星月里 晶洞里) 일대에는동텩소유디 일백오십 여석락이잇는데 동텩사원 삼본계차랑(杉本季次郞) 파견외식 량승호(梁承浩) [illegible] 세사람의 계책으로 파종가지 한백여명 소작권을 아무 리유도업시 일본사람에게 [illegible] 여섯집이당디에 오다하고 소작권을 박탈하엿슴으로 [illegible] 화식의 친족과친구에게는 사십여두락식 배부하야 주고 권귀소작인백여명은 일두락도 주지안는 바 소작권을 빼앗긴 소작인 십여호는 남부녀대하고 향방업시떠나는이도 잇슬뿐만 아니라 현재빼여호 소작인도 류리개걸할모양임으로 할수업시 그가련 군령과 경찰당국에서 쇄도하야 진정서를 데출하는데 군수심상국(沈相國)씨는말하되 사실을 됴사한후에 됴뎡하겟다고 말하엿스며 경찰서에서도 역시동일한

말하는데 소작인들은만약 군경당국에서 됴뎡하여 주지아니하면 최후에는 대표를 파견하야 동텩사리원지뎜을 방문하고 사실을 질문할 예뎡이라하며 지난십팔일에 도텽과총독부에 탄원서를 데출하엿다더라(신천)

家庭싸움으로 巡査가轉勤

본처와정부간

서로싸호든것이 권파되야

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 근무하는순사리두필(李斗弼)은 두안해사건으로 결국은 권고사직이되게되리라는데 그자세한말을들은즉 권귀리두필이가 자긔보처를도라보지안코 다른녀자와친밀히 지내면서밤낫으로그녀자의집에만가잇슴으로 리두필의본처는참다못하야 지난십칠일오후일곱시 [illegible] 반경에 이녀자의집에 아스려는 녀자의집을 차저가보고 또한분이서 자미스럽게술상을 차려노코 술을먹음을 발견하고 가슴에서 소사오르는 화를억제할수가 업서서 문을 열고 드러가면서 『웬년의남편을뺏앗느냐』하고 술상을뒤집어업는즈음에 욕을먹은 그녀자도분함을 참지못하야 입 어나면서머리를바다 욕하던녀자의 원편머리를 쌔흔려 류혈이랑자하게되엿슬뿐아니라 압뎡에다가 업혀노코 때리며 욕설을하는것이한큰 구경거리가되여 근처사람들이 만히모히게되엿슬뻐에 리두필이도아모말도하지 안흘뿐아니라서서구경만하고잇슴으로 머리도쌔여지고매도만히마즌리두필의본처는너무긔가막히어 울며나면서『너(리두필)는 말리지도 안코서서구경만하는것은내가 매마저죽어도 조타는 세음이냐엇권세음이냐』하매 리두필의말이 『그려다!죽어도조타』함으로리두필의본처는 너무나 긔가막히어머리가 푸러진채 류혈이 낭자한의복으로 경찰서에가서 그자세한말을하엿슴으로 이말이 각계주임과 서장에게까지 미쳣슴으로 불원간어느촌 주재소로권근을할터이라더라(사리원)

三郡民이渴望하는 龍興江改修工事

도지사도매우개수를찬성

불원에진정위원이상경해

함남영흥, 고원, 문천(永興高原文川)삼군의주민 삼십만의사활(死活)문뎨인 룡흥강개수공사로 삼군의 대표위원 삼인이도당국에 위선교섭키위하야 지난십이일에 출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

교섭한뎐말

을들으면 긔위원 고응현(高膺現)외 이씨는본도 텬야(天野)토목과장을먼저방문하고 본문뎨를 말하는동시에 삼군군민의 청원을모혼진정서와 밋현재정리못된 하천도면(圖面)을 지시하며 텬야씨는놀라는 낫빗흐로 『우리는룡흥강의정리가 긴급한줄은 이미짐작하는 바이지만 사실이이가티된것은 상상치도못하엿다』하며 정상(井上)내무부장은 『물론이문뎨는 벌서부터 숙뎨이지만 해결할 문뎨인바금번 지사(知事)회의에내가 출석할것가트니 제일로이와가튼문뎨를내의 하겟다』하면서 무슨성안이잇서보이엇다 이에 위원들도 『그러면지사회의가십팔일부터라니 이십일경에는우리도총독부에갈작뎡이어니와 부대속성되도록로력하여주기를 바란다』 부탁하고 그대로도라와방금상경하기로준비중인데 이문뎨는 권도가매우유망하다더라

우리함남

을위하야속히

은 지난십사일당디에 출장하야 사중인데 물론두기수가 현상을됴사복명(復命)하고 이어서지사회의에서 상정되며 대표위원의 진정이 잇슬터이라 금번에는 긔어코 실현되리라하야 일반주민들은매우깃버한다 더라(영흥)

本府技手出張

개수공사에대하야

별항보도와가티 룡강개수 공사는조미(焦眉)에급한문뎨일뿐아니라 생사가달린 삼십만주민은 밤낫으로 갈망중인데 이소식을 들은 총독부토목과기수 두사람 [illegible] 인데 이문데는 권도가매우유망하다더라

軍募視察委員

오년징역불복

대동회집행부재무부장(大同會執行部財務部長)이오 또중국간도일대의 군자금모집 시찰위원(軍資金募集視察委員)인 김봉한(金鳳漢)(三五)은 수십명부하에게 륙혈포를주어 막대한 군자금을 모집케한사실로인하야 지난달이십칠일에 청진(淸津)디방법원에서 오년징역의판결을밧고 즉시공소하엿든바 수일전에 경성복심법원으로 일건서류와함께 송치되엇다더라

暗算의天才嚴君

아모리속히불러도 일호의차착이업다

안성공립보통학교(安城公普校)륙년생 엄천석(嚴千石)(一六)군은 본군공도 공립보통학교(孔道公普校)에서졸업하고 동교에입학되얏는데 학력이우수한중 더욱 암산(暗算)에 텬재(天才)가잇서 신인인지 의심할만 하다는데 이제 그사실을듯건대 그담임선생 이일반 학생에게 주산(珠算)을 교수할때에 권긔엄군은 주판을 사유치 안는고로 선생이 그면고 주판을 귀치안케 주판을 필요가 업다함으로 인하야 암산을 시험한결과 백발백중으로 일호의차착이 업는고로 호서은행안성지뎜(湖西銀行安城支店)에서 교섭하야 면화로은행에서 수금을 려시험까지 하얏는데 불으기를 입으로는 더엘리 볼수업시불 럿다는데 이에대하야 찬양의뜻을가진 동은행지뎜과 읍내사무소(邑內事務所)에서는 친히면대도하고 상품도주고 하는데 동교장은 긍종치 안는다더라(안성)

나무장사를詐欺

경찰이범인엄탐

경긔도광주군 동부면류월포(廣州郡東部面流月浦) 륙번디 박은성(朴殷成)(四〇)은 십구일오후네시경에 솔나무를 소에싯고 안국동(安國洞)부근에와서 팔려고 섯던중 엇던남자가 와서 사원을주고 산후 광교(廣橋)부근으로 실려가지고와서 다옥뎡(茶屋町) 륙번디 정태경(鄭泰璟)의집압헤 푸러노코 기다리라고 한후 다른사람에게 사원을밧고 팔러가지고 다라낫슴으로 나무장사박은 그 사실을본뎡서에 애소하얏슴으로 본뎡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七十餘戶 垈地買收

마산오동동에

년래현안이해결

마산오동동(馬山午東洞)주민칠십여호가 터세로 인하야 살지못하게되겟다고 부텽가다 각관령이며 십지어 도텽에까지 진정서를세출하엿다 함은 재년 여름부터 그동안두차본보에 보도한바 어니와 [illegible]

安州中學期成有望

부호들이나서서맛게되여

일시긔세가 광장하엿든 안주중학긔성회(安州中學期成會)는 그간의 모순만흔 현실사회에 실패를밧게되야 명실이모다 업게되엇슬뿐아니라 몃몃사람의 롱락하는대 상가되여 식자가 개탄하든바 금년 새해가 잡히며 [illegible] 사업은 잘성취하리라고 일반은 깃버한다더라(안주)

宗土放賣타가

발각되야데포

충북청주군 강외면련데리(忠北淸州郡江外面蓮堤里) 박천규(朴千圭)는 금년삼월이후에 자긔의 종중소유로잇는 종답일곱필(宗畓七筆)시가륙백원어치를 자긔단독명의로 비밀히 동긔를내고 자여러종중 사람들의 인장을위조하고 가문서를 작성하야등긔수속을하다가 필경 종중일가에게발각되자 당디주재소에서 알게되야 지난십일일에 인장과문서위조죄로 청주서에 인치되야 목하 엄중한취됴를 밧는다는데 권긔 박천규는 원래그집안종손으로 작년구월분까지도 그종로 가자긔의 명의로잇든것을 종중

싹이독기

시작하야당디

부호김인호(金仁浩)씨와 리종린(李鍾麟)씨등의후원이잇게된후부터 모든부서가 정돈되며 긔세가왕성함에따라 그긔성회간사회를열고 협성방침을수립한결과 유급무급(有給無給)의상무위원으로 리관순 종북 안재수씨등을 선뎡하엿다 함은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십오일에 다시긔성회 총회를당지청년회 관안에열고 그사이의 지출한경비와 경과보고를 한후 의사진행에 도리가얼족이 볼수업는아름다운 결의를 어더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금번총회에는 평상시에 수수방관하든 금지의 부호류광조(劉光祚) 장학준(張學俊)제씨도 참석하엿 회의명맥(命脈)인경비부족에대하야서도 부족하는경우에는 자긔네가 부담한다하야 자못권도가유망함으로 일반은 무한이감격하엿다하며 또한 특히리진규씨의 발의로본회의 막대한사업을위하야는 상무위원을 삼인이상은 배치하여야겟다는데 일반이합의하야 김천주김광호, 문빈안재수제씨를 만장일치로 선뎡하고 동다섯시에 폐회하엿다는데 일반은 이후부터 그긔성회에

肅川의스리

세시간내로삼건

지난십오일평남평원군숙천(平南平原郡肅川)시장에 스리한명이출현하야 세시간내로 삼건을 스리하엿는데 권부가 식량사려왓든농민의것인데일건은돈륙원오십전이요 일건은 돈삼원륙십전이요 일건은 비인것인데이소문을듯은 순천주재소형사는 즉시수색에 착수한결과 데포하얏는데 본적을충남부여군(忠南扶餘郡)에둔자이라더라(평원)

火災로 小兒慘死

두식구가잇다가

로파는살엇다

지난십오일 정오에 평남순천군 자산면운곡리(平南順川郡慈山面雲谷里) 오리준(吳履俊)의집에 불이낫섯는데 그집가족은거진다들에가고 칠십로파와 네살된어린남자가 잇섯는데 굴독으로불이나와 집이전소되게 될때에야알고 실망한로파는 뚜여나오고 련진난만한 어린이는참사를당하엿스며 손해액은 삼백원이라더라(평원)

有夫女를戀慕

필경매질까지

려수군 돌산면 우두리(突山面牛頭里) 라상곤(羅相坤)(二三)이 지난사일 려수면동정 「가사리」 딸로왓다가 하로는오후딸시경에 그근처서 정에사는옥정주(玉貞柱)처리이엽(李二葉)(二四)이를길에서 맛나서 연극보러가자고 간청을 하나듯지아니하닛가 여러가지 위협한행동을하는고로 리이엽이는 울면불며자긔집으로 도라가남편에게 말하니남편은 분하야 삼사인을다리고 라상곤이를 차자구타를하엿다는데 라상곤이는 라상곤의부친을 리유업시 십야에달려드러 오히려고소한다하며자긔를버리고 다시장가든 다고강뎡한다더라(려수)

奉天火藥工場에

원인알수업는폭탄이나서

부상자수명을내인변사!

십구일밤여덜시봉텬병공창화약공창 데이분공장(奉天兵工廠火藥工場第二分工場) 이돌연폭발하야 사상자가수명인데 원인은 아직불명중 이라더라

여호?독갑이?

알수업는

선이

상투쌴남자의유혹 밤새도록끌려다녀

안주성내 률산리(安州城內栗山里)오백겸(吳伯謙)(四〇)은 지난십사일밤 십이시경에 거리외어느친구의 집으로부터 자긔집에 돌아오던중 률산리 률산연직소(栗山鍊織所)압헤니르자 엇던직소로부터 한일자 수건쓴 상투쌴남자한명이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본다고 인사한후 술이나가러 먹자고 서를으로 권긔 오백겸는그사람은 모르나 면란하게 하지안으려고 아는사람처럼 상대하엿 섯는데 상투쌴남자는 술집간다고 밤새도록 긔차라고 어디던지려 행을가라하면서 어느곳인지 모르는곳으로 밤새도록 끌고다니다가 새벽다섯시경에 동이훤하게렷슬뻐에 차시간이 느젓다하고는 인홀불견하엿고 오백겸는 몸이 신안주역(新安州驛)에니르러 잇섯다더라 (신의주)

軍募

[illegible]

日本「알푸스」 爆發降灰

십팔일새벽

세시에폭발

십팔일오전세시 일본「알푸스」 소개악죽세곡(燒岳足洗谷)은 돌연폭발하야몹시떡려나오는중 이더라

桑田被害甚大

양잠은전멸

일본「알푸스」 소개악은십구일오후 일시경에 또큰소리가 나고폭발하야고산디방(高山地方)은 라오분동안 크게울리엇고 산록의상전(桑田) 바면에는 비가나리어 생엽의 피해가심대하야양장은 전멸상태이요 평탕온천(平湯溫泉)의 목욕하는 손들은 뒤를이어도라가는중이라더라

靑年에게郡守謝過

자긔안해가청년구타한죄

지난 음력사월 파일에개천군개천군수(价川郡守)로 잇는 박청규(朴淸奎)씨의 안해이하 관료의부인과 평민의부인이 십여명의발긔로 팔일노리를 주최하야 동군읍내남산(南山)에서자미잇게노는중 읍내사는 김일연(金日淵)외 십여명의청년이 또한동소로 팔일노리를 가서놀다가 엇던자의 소위인지 부인석을향하야 엇더불량언사를 한사실로 부녀자들이 [illegible]

는지난십팔일에 청천강(淸川江)에 몸을던지어자살하랴다가 가긔가튼사람의 구조를바더 목뎍을 이루지못하얏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들으면 김청녀는 자긔남편을배반하고 다른사람과 도망하얏다가 두번재붓들려와서 경찰서에서 본남편과 가족어도 본부와는 가리살기실타고그와가티 자살하고자 함이라더라(성천)

泰仁時雨洽足

모맥에도조코

모판에도조타

태인(泰仁)부근에는지난십륙일 오전열한시경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하야 익일오전네시까지 연해오는비는 뎨일보리에 대단한리익이되며또앙판(秧板)에 적중하다고 일반농민측에서는 환희불이(歡喜不已)한다더라(태인)

自働, 自轉衝突

경찰서압헤서

지나간십팔일 오후한시경에 대구명치뎡(明治町)일뎡목에사는 김무학(金武鶴)(一八)은자전거를 타고경뎡통에서대화뎡(大和町)방면으로 향하다가 상뎡(上町)에서오는 시가자동차 일백사십륙호와 대구경찰서압에서 충돌되야 권긔김무학은 일시인사불성에 이르럿다가 대구의원에입원하야 응급치료한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관계업시되얏스며 자던거도파손되얏다더라(대구)

妻에게求乞

하다가안된다고

시칼로가슴을찔러

지난십팔일오후열시경에 평양부수옥리조일관(平壤府水玉里朝日館)이라는 료리뎜(料理店)에 평북신의주사는 백락도(白樂道)(三九)가 자긔가슴을가르고야 단한일이잇는데 그사실을들은즉 생활난으로인하야 삼년전부터 동거하든그처김영애(金永愛)(三三)를다리고 평양으로와서 엇더료리뎜에류하든바 한숙로도 지

興盡悲來

돈쓰고게집일코

몸은류치장으로

경북례천군 룡문면 제곡동에잇는 신천순(申千順)(二一)이란 청년은방금례천경찰서에 인치되야 취됴중이라는데 이제그사실을 대강듯건대 권긔신천순은 례천읍내스미레야(スミレ屋)라는음식뎜에작부(酌婦)로잇는 정란옥(鄭蘭玉)(一八)이란녀자와 애정이깁허필경란옥의 부채를십원주고자긔의첩을삼기로 승락하고 란옥의부채와 음식갑등백여원에 달하는거금을 줄터에 변통하기는 어렵고 란옥은 속히다려가고십허 견대다못하야 지난십팔일례천읍내 자뎐거영업하는 김뎜암으로부터 자뎐거한채를 외상으로사고 대금팔십원은 곡양도변구백근을 그이튼날 갓다주기로계약증서를쓰여주고자뎐거는읍내일본인모에게 뎐당하고 사십오원을 차용하야 다른보과합하야 란옥의부채를 갑헛섯는데 권긔계약한벼를갓다 주지아니한바 차권거포주인이 필경고소를데긔한것이라하며 란옥은자긔친뎡으로갓다 더라(례천)

靑春美人自殺

리면사정

매우복잡한듯

원산부 석우동 일백사십이번디 뫼인의안해 리련자(元山府石隅洞朴仁妻李仁子)(二一)는지난십일일밤에 양잿물(苛性曹達)을 먹고 신음중에잇는것을 집안사람이알고 응급치료 하엿스나 원래 자살할목뎍으로 만히먹은 효로 지난십오일아참에 드듸여 사망하엿다는데 사체는 동일원산경찰서(元山署)로부터 경관이 출장검시하엿고 자살의리면에는 무슨아지못할사정이 잇는듯하다하며 본인은 그부근에서 자못미인이라고하얏다더라 (원산)

新義州의 雄辯盛況

각사상이

다나오웅변대회

신의주신만(新灣)텬도교(天道敎) 신의주긔독(新義州基督)데이긔독(第二基督)각청년회의련합주최와개벽지사(開闢支社)시대(時代)동아(東亞)본보(本報)각지국의 후원으로 데삼회신의주

현상웅변

대회(第三回新義州懸賞雄辯大會)는예뎡과 가티 지난십팔일오후 여덜반에 공회당에서 열리엿는데 한시간 전부터 모여드는 청중은뎡각전에립추의 여디도업시 들어섯고 장외에도 사오백이나 둘러서서 연사에게 추천으로써 출연의순서를뎡하고 사회리례용(司會李禮用)씨의 간단한개회사가잇슨후 순서에도 신만청년회대표 김독린(金得麟)군이 등단하야 현사회의병폐(現社會의病弊)란연데로 현사회데도의

모든결합

을들어서통론하엿고국경신인회(國境新人會)대표 김경서(金正瑞)군은『우리는먼저 국산화(國産化)하자』는연데로시대착오의몰산거리를 누르며첫고 의주군동산긔독청년회(義州郡東山基督靑年會)대표 리긔혁(李基赫)군은『의인이필경세계를 정복하리라』(義人이畢竟世界를征服하리라)라는연데로 부득요령의 통계(統計)를 가지

고 허대에 연뎨를 말한후 심판원리기 등에 쓰러넛든다는말로 청결군의본분을 말한후 심판원리 의 헌덕(審判員李熙廸)씨가 등단하야 심판의표준은 연데, 사상자태어됴(演題思想姿態語調)의 씨명을 발표하고 동십일시반에 공연의며 청황으로 폐회하엿스며 금번에는 일반이 강연에대한 감정여하를 알기위하야 당디 개벽지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일반 청중에게 노아주어 투표케하엿는데 수상자의 씨명과 상품과 상품긔증인의씨명과 일반투표의결과는 다음과갓다더라

◇受賞者氏名

一等 定州五山學生靑年會 朴春根

二等 新義州天道敎靑年會 金泰俊

三等 新義州第二基督靑年會 金炳淳

◇賞品

一、二、三、各等에銀메-달一個式 演士九人에게便箋二冊及空冊一冊式

◇寄贈人氏名

便箋紙二十冊 天道淨行 空冊十冊 文化堂

◇一般投票結果

一等金泰俊三七票朴春根三五票 姜齊煥一三票金炳淳一一票 二等朴春根四三票金泰俊一八票 金炳淳一七票姜齊煥金正瑞 一三票 三等朴春根二一票金泰俊姜齊煥 一九票金炳淳一八票

(신의주)

용서업시

당어다가쓰레

기통에 쓰러넛는다는말로 청결군의본분을 말한후 [illegible] 는 냄새나는것은 이청결군은 [illegible]

醮禮廳에 두新郞

처녀의부덩이

초례석에서폭로

강화군 삼산면석구(江華郡三山面石隅里)황행원(黃行元)은 동군양사면텰산리(兩寺面鐵山里)권응원(千應元)의 장녀 이십이세된처녀를 맛며 안혼인하고 일자 순후 신부집으로다려오게되여 처권긔황행원의 부친이 후행이 되어가지고 권긔

천처녀

를 마지려신부의 집으로 갓섯는데권긔 권처녀로 말하면 동리사는 장긔철(張基喆)(二五)과 청년부터남모르는 정을통하고 단뎜을두어오든터 이나 권긔장긔철로 말하면 가산이 빈한하야 권긔권처녀를 한번이라 엇지할수업시 취처를 못하고 그저그저지나는중 그처녀를 황행원에게 빼앗기게되얏슴으로 권긔장긔철은 부자불각 호사다마로 장긔철은 부자불각

自働車轉覆

碎頭卽死

급하언덕을 내려가다가

평남성천군 상동면풍평리(平南成川郡雙龍面豊坪里) 삼백칠십이번디 리재훈(李在勳)(二五)은 십일일오후 다섯시삼십분에 자동차를타고 순천군립천면 은천리 뎡현이라는 평원도로(平壤道路)의금판(急阪)을 모라내리는 중에 뎐등이쌔지어 일간반되는 놉흔곳에서 떠러지어 머리가깨어져 그대로 죽엇다더라(평양)

營利誘拐犯人

처녀유인범

일년반과일년징역

긔보 남의처녀를꾀여서 몸의한욕심을 채우려든 강경자(姜敬子)김영원(金永元)강인한(姜仁漢)등삼명에대한영리유괴(營利誘拐)사건의데이회공판은 지난 십오일 오후일시부산 디방법원 진주지텽 (釜山地方法院晉州支廳)데일호법정에서 공판개정을 이어 관결언도를 하얏다는데 그형긔는 다음과갓다 더라(진주)

姜敬子 懲役 一年半

金永元 姜仁漢 各一年各三年間執行猶豫

洪原에火災

세집소실

홍원군 보청면나천리(洪原郡甫靑面羅川里)에서지난 십일일밤 열두시경되여 우연히 불이나서 리천명(李天明)씨집이 전소(全燒)되고 불은 건너편엣소되여 부근 리반호(李班鎬)리승호(李昇鎬) 씨집이 (全燒)전소되자 리천명 씨는밤이 깁허씀으로 잠을 깁히들엇다가 별안간 그리경을 당하니 엇절줄모르다가 면상(面上)까지화상(火傷)하고 손해는 오백여원에 달하엿다하며 이불 이난원인은 당디경찰관 주재소(警察官駐在所)에서 조사중인 바 일반이 엄시는 대소동을 이루엇다더라(삼호)

雨雹에野菜被害

십구일오후네시경에경청부군일 대에소낙비가나리는중에고양군 연희면연희리(高陽郡延禧面延禧里)부근에는 우박이나리여서 야채(野菜)등에 다소의 손해가 낫다더라

●取消申請● 貴報第一千七百三號朝刊二面『神가튼假面쓰고猛蛇行動한先生』이란記事中本人等兄弟에關한事實은全然相違되오니此에取消를申請함

一九二五年五月十五日

安岳郡海際面山吉里三四八

姜世遠 姜應遠

朝鮮日報社 貴中

軍募

武裝團二名逮捕

십팔일밤열시평북녕변에서

무장단두명이데포되얏다고

십팔일 오후열시에 평안북도녕변군봉산면 룡흥리(平北寧邊郡鳳山面龍興里)에서 무장단두명이 경찰에 데포되엿더라

宣川駐所襲擊

連累十人逮捕

각처에서데포

선천군남면삼봉주재소 (宣川郡南面三峰駐在所)를습격한 수상한범인을 동경(東京)등디에서 데포하얏다 곳에 널려잇는것을 데포하얏다 향은이미본지에보도한바이어니와 동서에서는계속하야 활동한결과 근일년만에 이십여명을방 간 검사국으로압송된범인은 김학룡(金學龍)로원근(盧元根)강역로(康益祿)김양호(金陽浩)김두두(金龍斗)최경화(崔京華)김례호(金禮浩)김리보(金利甫)리달룡(李達龍)차운흥(車雲興)등 십인이라더라(선천)

背夫女의 投江自殺未遂

죽어도가리살기실타

평남성천군 삼덕면대동리(平南成川郡三德面大洞里)리대도(李大道)의처 김성녀(金姓女)(二三)

栗莉山大騷動

장사하는것을

일동이말리노라고

지나간십칠일일요일에 경주군감동면양동(慶州郡江東面良洞)압헤잇는 율령산(栗莉山)에는권 긔양동인민과 인동인민 남녀권 여명이모히여 근래에 처음보는 대소동을 이르키어 동면내에잇는주재소(駐在所)의힘으로는 도뎌히 진압식힐수업다고하야 경주경찰서에 급보를하얏슴 으로이급보를들은경주경찰서는 정상(井上)서장 이하사복한순사와무장한경관

십사명이

현장에급행하얏섯는바 권여명의군중은 경관대에게 해산을당하고 남녀로소 가 패패히솔밧속으로 혹은부덕이무덕이 인가근처에서 경관들에활동만처다보고잇섯스며한편에서는 서장이 그곳유력자수십명을 양동공립보통학교(良洞公立普通學校)교실에

소집하고

일장설명을하 [illegible]

『白丁』사위싸닭에

중매를칼로찔러

중상을식히고이년징역에

관결언도를불복하고공소

홍천군 홍천면내덕리(洪川郡洪川面乃德里) 윤봉영(尹鳳榮) (四七)은그동리윤병식(尹秉植)의 중매로 대녕군경과면신소리(保寧郡靑蘿面新小里)사는신우섭(申禹燮)이를자긔 셋재딸 당을 (唐房)이의사위로

다려와든

바풍편에신우섭은신분이백뎡(白丁)이라는소리가들리여 동리사람들이모다아모게는백정사위를어덧다는등소문이파다한것을비관하야그사위를중매한윤병식이를원망하고금년사월십구일오후다섯시경에식칼을가지고윤병식의목이고커럼버드런찌럿스나그가족에게제지되여목적을이루지못하고경관에게데포되여공주(公州)디방법원에서 지난구일에 징역이년의관결언도를밧고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엿다더라

順天西面 面民大會

공립보교

위치문데로야단

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 서면공보위치(西面公普位置) 문데

휘파람

▲경주군 옹긔향(慶州郡雄基鄕)에사는사람은 곽순옥(郭順玉)이란 업자리종운(李鍾運)이란자에게 ▲그아들의혼인잔채비에 돈이업서 병원을차용하엿는데 이매▲ 권긔리종운은아들의혼인잔치긔일에이르러 감하리준수업든형편이엿 리돈이 중하다해도 사람으로서 의참아못할 꼭언만행이라고 책고비난한다 문고!소위 작